

광택이 풍부한 주자직

주자선이라고 부르는 능선에 유사한 선이 나타난다. 비교적 주자선이 확실하게 보이며 광택이 풍부하다. 부드러운 태를 하고 있고 드레이프가 아름답게 나타난다. 바닥이 치밀하고 중간 정도의 두께이다. 이러한 직물을 바로 비니션(venetian)이라고 한다. 비니션은 경 5매 주자이다. 경사의 부출이 많은 옷감으로 경사의 올 수는 위사의 올 수의 2배 이상으로 급경사의 주자선이 나타난다. 따라서 비니션을 주자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주자선이 능선과 유사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개버딘(gabardine)이라든가 서지(serge)라고 오인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니션은 경사와 위사 모두 소모사를 사용하는 외에 경사를 소모사, 위사를 방모 강연사를 사용한 그레이프 비니션이 있다. 도스킨(doeskin)도 주자직의 옷감이다. 마무리 가공시에는 주자선이 보이도록 가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스킨 마무리라고도 한다. 또한, 모우가 경사방향으로 눕혀져 있으며, 광택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손촉감, 피부촉감, 바닥이 치밀하고 중간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

한편, 사슴의 모피와 같은 느낌에서 유래하는 도스킨은 모닝이라든가 턱시도 등의 검정색 예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고급의 소모옷감인데, 경사 소모, 위사 캐시미어 40% 혼방사로 만든 것도 있다. 모두 경사의 올 수가 많다.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 정장을 입을 기회가 많다. 결혼이라든가 각종 행

사 등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고급스러운 광택이 있는 옷감이라면 우선 실크 옷감이 있다.

실크 옷감은 원료로 하는 견섬유 자체가 온화한 광택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짜든지 광택이 있는 옷감이 얻어진다. 웨딩 드레스에 사용되기도 하는 새틴(주자직)은 천의 표면이 매끄럽고 강한 광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새틴에는 중후한 감촉과 더불어 볼륨감이 있다. 새틴은 경사의 부출이 길다(위사 4올 또는 7올의 위로 부출 시킨다). 그래서 부출된 상태의 실을 측면에서 강하게 마찰시키면, 실이 빠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점포에 진열할 때에 잡아 당겨지지 않도록 다룰 때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거친 손으로 다루는 것도 금물이다.

새틴은 튼튼함보다도 아름다움을 우선시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어두운 색조, 투명감, 광택이 있는 심미가 있는 색으로 보인다. 선명한 색은 보다 선명하게 보인다. 때문에 실크 새틴을 모방하여 아세테이트 새틴, 폴리에스터 새틴, 레이온 새틴 등을 만들어 값싸게 공급하고 있다. 한때는 레이온 새틴이 유행한 적도 있다.